

대학생의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과 수행

The Consciousness of Values and Enactments toward the Etiquette among University Students

김 회 경 · 정 영 숙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복지학과

Kim, Hee Kyung · Chong, Young Sook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general trends, to determine the factors of influencing the consciousness of values and enactments in the etiquette among university students, and eventually to provide the useful information for etiquette education of university students.

Four-hundred and forty university students from four different universities in Cheongju city were selected, and questionnaire survey method was utilized.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using SAS program.

The results and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level of value consciousness and enactments in the etiquette were found to be 3.92 and 3.42 respectively(mean 3.00).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value consciousness according to major, parents' age, fathers' job, family types, and the experience of etiquette education,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nactments according to sex, religion, having girl/boy friends, growth place, parents' age, and the experience of etiquette education.

3) It was found that main educator of etiquette was most highly influencing factor on consciousness of value, and sex, age were most highly influencing factors on enactments in the etiquette.

4) There were positive strong relationships between value consciousness and enactments in the etiquette.

Key words : value consciousness, enactments of etiquette

I. 서 론

Corresponding author: Young Sook Chong

Tel. (0431)261-2744

E-mail: yschong@cbucc.chungbuk.ac.kr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린 만큼 과거

에는 예절을 숭상하고 실천해 왔다. 그러나 어렵고 혼란스러운 역사 속에서 오늘날 예절문화는 위기를 맞고 있고, 개항 이후 유교사상은 근대적 전환기에서 보수적 입장을 고수하고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일제해방 후 유입된 서양문화에 의해 전통예절은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산업화로 인한 서구화의 양상은 개인의 사회관, 물질생활 및 정신면에서 현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로 말미암아 전통적 규범과 현대적 규범 사이에 도덕의식의 갈등이 남아 있고 심한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했다(김득중, 1997).

급격히 일어나는 우리 사회의 생활양식과 사회구조의 커다란 변화로 전통 윤리와 기본적인 생활예절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져 예절이 소홀하게 취급되었고,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그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어 기본생활 습관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다.

다행히 근래 정부, 학교, 언론, 각종 사회단체에서 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도덕성 회복을 위한 일련의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예절은 일반 교육처럼 단시간 내에 일방적인 지식의 축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일생동안 끊임없이 갈고 닦아 형성되어야 하는 전인 교육으로서 실행되어야 한다.

Dewey(1966)는 “정규 교육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이 인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교육을 종합적으로 마무리하는 도덕적 목적을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만다(p360)”라고 함으로써 교육에 있어서의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太平勝馬이론에서는 대학생의 예절심리 발달단계는 예절의 양면적 성숙기로 예절 가치의 갈등을 극복하는 전환기를 거쳐 생각과 행동의 일치를 보게 되는 양면적 성숙기에 이르는 시기라고 하였으며, 그 발달단계에 따라 학교교육도 세분화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정덕희, 1972, 재인용).

그러나 현재까지 유아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와 관련된 연구가 몇편 이루어졌을 뿐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예절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이정우, 김연화, 1996; 정지영, 주영애, 안현숙, 1996; 정지영, 임혜경, 1997; 이길표, 1997)들도 대부분이 생활예절에 대한 의식조사에 그쳤고 대학생의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과 수행을 연구한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오늘날 대학생을 위한 예절교육은 문화간의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변화되는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생활예절 교육으로서 변모가 요구되고 있다. 고도의 정보화 시대를 준비하고 적용해야 하는 전환적인 시기에 놓인 우리 나라 대학생에게 우리 고유의 예를 지키는 가운데 다른 문화권의 예도 존중하면서 이를 적절히 조화시켜 국제적으로 세련된 생활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에서의 예절교육은 더욱 이루어져야 할 시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활예절 연구는 우리 나라의 정신적 근간인 예를 연구하는 작업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과 수행의 일반적인 경향과 차이를 나타내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찾아내며, 가치의식과 수행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앞으로 생활예절 교육의 목표나 내용 또는 방법 등의 개선을 위해 본 연구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대학생의 생활예절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대학생의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과 수행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2)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과 수행은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차이가 있는가?
- 3)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과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4)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과 수행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생활예절의 개념

예절이란 “예의(禮義)”와 “범절(凡節)”이 합쳐진 개념으로 생활예절은 일상생활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일정한 생활문화권에서 습득하는 오랜 생활 관습을 통해 하나의 공통된 생활방법이 정립되어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계약적 생활 규범으로 모든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자신의 행동 규범을 말한다(김득중, 1997).

오늘날은 예절과 비슷한 용어로 매너(manner), 에티켓(etiquette)이 함께 사용되는데 이 두 용어는 차이가 있다. 매너는 습관이나 몸짓 등 일반적인 법칙을 가리키는데 비해, 에티켓은 고도의 규칙이나 예절 등 사회인으로서 거기에 어울리는 감정을 지녀야 한다는 매우 요구도가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Post(1969)는 생활예절(etiquette)을 “배려와 친절에 바탕을 둔 행동의 규범”이라 하였다(박홍석, 1991, 재인용).

또한 프랑스의 철학자 Bergson(1972)은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의하여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능력에 예절의 본질이 있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예절은 그 시대에 맞아야 하고 상대방을 의식하는 데부터 출발한다(박동호, 1994, 재인용)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예절의 형식이나 절차는 시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예절은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를 바르게 하는 자기 관리와 남을 상대로 하는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며, 조화로운 사회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2. 생활예절의 가치의식

생활예절의 가치의식이란 통념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생활 속의 예절이 실제 본인의 의식구조 속에 내면화되어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 정도를 의미한다(이정우, 김경아, 1997).

생활예절에 있어서 한 개인의 가치의식이 중요한 이유는 예절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내면화시킴으로부터 시작하여 실천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예절을 습득하여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해함으로써 예절 행동이 유발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유치원생의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현아(1994)의 연구에서 가정에서의 기본 생활교육에 대한 의식에 있어 부모의 74%, 교사의 92%가 예(禮)에 대한 가치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박민규(1994)의 연구에서 교사들의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절교육에 대한 관심과 예절교육에 대한 목표 인지도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초등학교 생활예절 교육 내용 및 지도실태 분석을 한 노은호(1996)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생활예절 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예절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는 조사대상 학부모의 25%에 불과하여 가정에서의 생활예절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여중생의 예절교육 실태에 관한 장경선(1993)의 연구에서 여중생들은 식사예절·언어예절·마음가짐·몸가짐·인사예절 등의 개인생활 예절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예절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고 대답한 여중생의 어머니는 응답자의 63%로 비교적 높았으며, 어머니의 경우 학력이 가장 낮은 국졸 집단과 가장 높은 대졸 집단에서 관심도가 높았고, 아버지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예절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예절 의식과 생활예절 교육의 필요성에 관하여 조사한 이길표(1997)의 연구에서 고등학생과 그의 어머니 모두 마음가짐과 몸가짐에 관련된 개인예절에 가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혜경, 정지영(1997)의 연구에서 생활예절 교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영역은 의례생활예절이며 다음으로 수신, 식생활예절, 가족생활예절, 사회생활예절, 의생활예절 순으로 나타났다.

기성세대와 대학생을 비교 분석한 이길표, 주영애(1995)의 연구에서는 기성세대가 대학생보다 가정규범 교육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으며, 기성세대인 주부가 20대에 조부모와 동거를 경험한 주부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활예절 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영, 임혜경(1997)의 선행연구에서도 조부모와 동거경험이 있는 학생이 식생활예절과 가족생활예절을 더 잘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미래의 각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집단이다. 즉 우리 사회에서 대학교육 이상을 수학하고 일정한 생업에 종사하는 중산계층을 형성하여 국가의 모든 사회·정치·경제·문화에 다양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은 그들의 교육관·가정관·민족생활관 등 다양한 견해를 대변해 주고 있으며 학문의 탐구외에 정서적, 경제적 독립, 직업의 준비·선택 등과 함께 혼인과 가정생활의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이다. 대학생의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은 곧 그 가정과 사회의 예 문화를 이끌어 가는 가장 근본적인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생활예절의 수행

생활예절 수행이란 예절 생활의 정립을 위하여 실제 일상생활에서 예절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실천 정도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평가를 의미한다(이정우, 김경아, 1997).

가정은 예절의 기초를 익히고 실천하는 수련의 도장이며, 인간관계를 맺음에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예를 체질화(구체화), 내면화시키는 곳이고, 이를 가치화·습관화시키는 곳이다. 그 만큼 가정은 예절 교육의 장으로서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 있다(최병호, 1991).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 부모의 예절교육 실시 정도는 미약한 수준을 보였고

(정현아, 1994), 초등학생 예절교육 내용은 개인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중 개인생활이 가장 강조 되고 있다(박민규, 1994).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김윤환(1994)의 연구에서 수신·효도·검약과 가족사랑 및 책 읽기의 영역 모두 낮은 수행을 보였으며, 또한 가정에서 생활예절 교육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부모는 조사대상자의 21%에 불과해 예절이 소홀히 취급됨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 및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생활예절 수행에 관한 김진규(1996)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혼전의 성순결, 나이에 따른 위계질서, 노인과 장애인의 배려, 웃어른에 대한 공경 항목에서 생활예절 수행이 높게 나타났고, 현대 사회에서의 효도 이행도, 문안인사, 웃어른에 대한 한문식 존칭 사용의 항목에서 낮은 수행을 나타내었다.

기성세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길표(1997)의 연구에서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이 수행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생활예절의 가치의식과 수행간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은호(1996)의 연구에서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예절교육에 대한 가치의식이 높을 때 학생들의 예절 수행정도가 높아진다고 밝혔다.

대학생의 예절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 중 임혜경, 정지영(1997)의 연구를 보면, 성과 나이에 따른 생활예절 수행은 차이가 없고, 예절을 실천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예절이 몸에 익숙하지 않은 점과, 예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점으로 나타났다.

임희규(1994)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예절수행은 예절에 대한 의식과 마찬가지로 모든 예절영역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어 비교적 건전한 예절의식을 지니고 예절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은 사회생활예절 영역의 의식 수준과 실천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생활에 대한 관심과 준비의식을 반영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살펴볼 때 전반적으로 대학생들은 앞으로 직장생활과 결혼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또한 사회생활 예절에 대한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예절수행에 있어서는 제례와 상례

〈표 1〉 범주형 변인의 코딩방법

변 인	범 주	
전 공	예체능계열	0
	인문·사회, 자연, 의학계열	1
성 장 지	대도시	0
	중소도시 및 농촌	1
부의 직업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기술직, 판매서비스직, 농·임·어·축산업	0
	단순노무직	1
모의 직업	전업주부	0
	취업자	1
종 교	불교, 무교	0
	기독교, 천주교	1
가족형태	핵가족	0
	확대가족, 편부모가족	1
주교육자	부모님	0
	학교, 기타기관	1

에 대한 지식의 부족 및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서양식 테이블 매너와 우리 고유의 한복 착용법과 어른에 대해 절하는 법 등에서 실천과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예절교육은 원만한 사회생활의 출발과 순조로운 사회적응을 위하여 예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 대상은 청주시 소재 4개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자연, 인문·사회, 예체능, 의학계열의 전공별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예비조사는 1998년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5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본 조사는 1998년 8월 24일부터 9월 2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실시방법은 본 연구자가 직접 질문지를 배부하고 내용을 설명 한 후 응답하게 하여 회수하였으며, 질문지는 총 500부를 배부하여 467부를 회수하였다. 그 중 응답이 부실한 것 27부를 제외하고 총 440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2. 조사도구

1) 생활예절의 가치의식

대학생의 생활예절 가치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정우와 김경아(1997)가 제작한 조사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생활예절 가치의식은 수신예절 영역 6문항, 대인관계예절 영역 10문항, 가정의례예절 영역 7문항으로 총 23문항을 5점 평정척도 형태로 매우필요하다 5점, 약간 필요하다 4점, 보통이다 3점, 별로 필요하지 않다 2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실제 본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예절에 가치를 높이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문항의 신뢰도(Cronbach' α) 값은 수신예절 영역이 0.75, 대인관계예절 영역 0.83, 가정의례예절 영역 0.86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인 가치의식의 신뢰도는 0.89였다.

2) 생활예절의 수행

대학생의 생활예절 수행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정우와 김경아(1997)가 제작한 조사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생활예절 수행에 관한 척도는 수신예절 8문항, 대인관계예절 11문항, 가정의례예절 3문항으로 총 22문항을 5점 평정척도 형태로 항상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보통

〈표 2〉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과 수행의 일반적 경향

변 인	하 위 영역	평균	표준편차
생활예절 가치의식	수 신 예 절	4.32	0.31
	대인관계예절	3.90	0.37
	가정의례예절	3.54	0.67
	계	3.92	0.45
생활예절 수 행	수 신 예 절	3.51	0.29
	대인관계예절	3.52	0.32
	가정의례예절	3.22	0.89
	계	3.42	0.50

이다 3점, 거의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실제 본인이 살아가면서 생활예절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문항의 신뢰도(Cronbach' α) 값은 수신예절 0.69, 대인관계예절 0.77, 가정의례예절 0.73으로 전체적인 수행의 신뢰도는 0.82였다.

3) 범주형 자료의 코딩 방법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범주형 변인인 전공, 성장지, 부의 직업, 모의 직업, 종교, 가족형태, 주요교육자의 코딩방법은 분산분석 결과 중사후검정 결과를 토대로 하여 범주형으로 코딩하였고, 나머지 변인은 연속형으로 이용하였다(<표 1>참조).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학생의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과 수행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대학생의 가치의식과 수행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고, 사후검정은 최소유의차(LSD : $\alpha=0.5$)를 적용하였다.

생활예절 가치의식과 수행에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생활예절의 가치의식과 수행간

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피어슨(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과 수행의 일반적 경향

대학생의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과 수행의 일반적인 경향은 <표 2>와 같다. 대학생의 생활예절 가치의식은 평균 3.92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대학생들은 생활예절이 실생활에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덕목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하위영역별 나타난 점수를 보면 수신예절(4.32), 대인관계예절(3.90), 가정의례예절(3.54)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수신예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예절의 본질에서 자기관리 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생활예절의 수행은 평균 3.42로 가치의식 3.92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예절의 완성은 실천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격식에 해당되는 생활예절에 대한 수행을 높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위영역별 나타난 점수를 보면 대인관계예절(3.52), 수신예절(3.51), 가정의례예절(3.22) 순으로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과 수행의 차이

변인	구분	수신예절		대인관계예절		가정의례예절	
		평균(표준편차)LSD		평균(표준편차) LSD		평균(표준편차) LSD	
		가치의식	수행도	가치의식	수행도	가치의식	수행도
성별	남	4.31(0.58)	3.42(0.56)	3.84(0.60)	3.38(0.66)	3.42(0.81)	3.46(0.99)
	녀	4.34(0.49)	3.58(0.47)	3.90(0.57)	3.67(0.45)	3.55(0.78)	3.00(0.88)
	t값	-0.39	-2.73**	-0.90	-4.69***	-1.60	4.52***
전공 계열	인문계열	4.37(0.50)	3.48(0.54)	3.89(0.56)	3.55(0.47)	3.44(0.78) b	3.06(0.95)
	자연계열	4.31(0.58)	3.56(0.47)	3.88(0.60)	3.54(0.53)	3.54(0.81) b	3.25(0.88)
	예체능계열	4.19(0.57)	3.49(0.58)	3.93(0.58)	3.59(0.55)	3.72(0.84) a	3.32(0.90)
	의화계열	4.41(0.58)	3.41(0.70)	3.90(0.80)	3.53(0.92)	3.38(0.88) b	3.38(1.23)
	F값	1.52	0.91	0.29	0.33	2.44**	2.01
종교	무교	4.29(0.51)	3.45(0.55)	3.84(0.58)	3.54(0.63)	3.44(0.79)	3.30(0.96) a
	기독교	4.37(0.56)	3.53(0.51)	3.92(0.59)	3.58(0.52)	3.51(0.79)	3.02(1.00) b
	불교	4.25(0.59)	3.56(0.47)	3.86(0.62)	3.51(0.50)	3.65(0.84)	3.35(0.86) a
	천주교	4.33(0.65)	3.55(0.48)	4.01(0.58)	3.59(0.44)	3.70(0.81)	3.00(1.00) b
	F값	0.89	1.26	1.18	0.40	1.99	3.07*
이성 친구	유	4.38(0.50)	3.57(0.44)	3.92(0.61)	3.58(0.48)	3.50(0.82)	3.22(0.92)
	무	4.29(0.56)	3.47(0.56)	3.85(0.56)	3.53(0.62)	3.50(0.79)	3.18(0.99)
	t값	1.50	1.91*	1.07	0.89	0.06	0.44
성장 지	대도시	4.42(0.56)	3.63(0.59)	4.00(0.61)	3.64(0.77)	3.54(0.82)	3.50(1.17) a
	중소도시	4.31(0.58)	3.48(0.51)	3.90(0.62)	3.52(0.51)	3.53(0.84)	3.17(0.85) b
	농촌(읍)	4.26(0.52)	3.49(0.55)	3.82(0.56)	3.55(0.51)	3.54(0.78)	3.16(0.95) b
	F값	1.92	2.36	1.67	1.37	0.01	3.89*
부의 연령	40대	4.28(0.58)	3.49(0.50) b	3.82(0.55) b	3.53(0.53)	3.51(0.88)	3.10(0.95)
	50대	4.32(0.54)	3.50(0.52) b	3.91(0.59) b	3.56(0.57)	3.53(0.78)	3.24(0.94)
	60세 이상	4.46(0.58)	3.72(0.71) a	4.11(0.80) a	4.56(0.64)	3.64(0.89)	3.46(0.99)
	F값	1.44	2.91*	3.22*	0.15	0.31	2.23
모의 연령	40대	4.26(0.59) b	3.46(0.53) b	3.85(0.60) b	3.53(0.53)	3.50(0.82)	3.09(0.90) b
	50대	4.36(0.52) b	3.53(0.50) b	3.93(0.58) b	3.55(0.62)	3.56(0.80)	3.38(1.00) a
	60세 이상	4.63(0.36) a	3.86(0.80) a	4.24(0.75) a	3.78(0.43)	3.63(0.97)	3.43(0.75) a
	F값	5.01**	5.57**	4.21*	2.02	0.42	5.16**
부의 직업	전문직						
	관리직	4.27(0.64)	3.37(0.49)	4.04(0.57)	3.65(0.93)	3.56(0.65) a	3.31(1.29)
	사무·기술	4.37(0.52)	3.58(0.51)	4.00(0.57)	3.55(0.59)	3.58(0.86) a	3.25(0.95)
	판매·서비	4.37(0.55)	3.49(0.50)	3.95(0.53)	3.53(0.46)	3.65(0.81) a	3.23(0.94)
	스	4.27(0.61)	3.52(0.50)	3.81(0.60)	3.54(0.49)	3.47(0.86) a	3.18(0.84)
	농·임·어	4.28(0.52)	3.54(0.54)	3.85(0.59)	3.62(0.54)	3.64(0.79) a	3.26(0.92)
	·축	4.27(0.46)	3.58(0.53)	3.64(0.70)	3.45(0.49)	2.86(0.32) b	2.76(1.04)
	단순노무직						
F값	0.43	0.63	1.31	0.89	2.00*	0.64	
가족 형태	핵가족	4.34(0.57) a	3.51(0.52)	3.90(0.61)	3.57(0.57)	3.54(0.83)	3.20(0.96)
	확대가족	4.22(0.48) b	3.48(0.47)	3.80(0.54)	3.54(0.54)	3.46(0.66)	3.26(0.95)
	편부모가족	4.09(0.51) b	3.52(0.54)	3.88(0.46)	3.43(0.44)	3.35(0.87)	3.26(0.83)
	F값	2.85*	0.13	0.90	0.56	0.69	0.12
예절 교육 실태	예절 교육 유	4.38(0.50)	3.58(0.49)	3.92(0.59)	3.59(0.50)	3.53(0.81)	3.21(0.90)
	교육 무	4.14(0.61)	3.30(0.53)	3.75(0.55)	3.43(0.74)	3.39(0.77)	3.14(1.13)
	경험 t값	3.28**	4.31***	2.44*	1.94*	1.52	0.50

* P<0.05 ** P<0.01 *** P<0.001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인사와 언어 예절(수신예절)의 수행이 낮다고 지적한 연구(장경선, 1993) 결과와는 서로 다르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과 수행의 차이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생활예절의 가치의식과 수행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 1) 조사대상의 성에 따른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은 차이가 없으나 수행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수신예절과 대인관계예절의 수행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고, 의례생활예절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행을 보였다. 위의 결과는 선행연구(김일명, 김명자, 1989 ; 서정아, 1994)에서 여자대학생과 남자대학생의 비교에서 여학생이 조상숭배(의례생활예절)에 대해 더욱 근대적인 가치의식과 수행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보인다.
- 2) 전공계열에 따라서는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의 하위영역 중 가정의례예절 영역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생활예절 수행의 하위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예체능계열 학생이 타계열 학생보다 가정의례예절의 가치의식이 높았으며, 이의 결과는 예절에 대한 의식과 수행이 전공계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는 연구(정지영, 임혜경, 1997) 결과와 일치함을 보인다.
- 3)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은 종교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고 수행의 하위영역 중 가정의례예절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불교나 무종교 집단이 기독교와 천주교 집단보다 가정의례예절의 수행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종교적 특성에 따른 의례의 차이에 기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 4) 이성친구 유무에 따른 생활예절의 가치의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수신예절 수행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성

친구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수신예절의 수행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성친구가 있으므로 자기자신의 몸가짐에 대해 반성의 기회를 갖기 때문에 언어·행동 예절의 수행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 5) 가족관련 특성에 따른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과 수행을 살펴보면 성장지에 따른 가치의식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수행의 하위영역 중 가정의례예절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대도시가 중소도시, 농촌, 읍 단위의 학생보다 가정의례예절 수행이 높았다.
- 6) 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예절에 대한 가치의식과 수신예절 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소득과 학력은 정적인 관계에 있고 학력이 낮음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닌다는 선행연구(옥선화, 1975) 결과와 일치함을 보인다. 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수신예절, 대인관계예절의 가치의식이 높았으며, 수행에 있어서 수신예절과 가정의례예절의 수행이 높게 나타났다.
- 7) 부의 직업이 단순노무직 보다는 전문직·사무직·회사원에서 가정의례예절에 대한 가치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수행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부의 직업이 사무직이고 관리전문직인 경우 의례생활예절의 가치의식이 높고,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수신예절의 가치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의 결과는 선행연구(임혜경, 정지영, 1996) 결과와 일치함을 보인다.
- 8) 예절교육 실태에 따른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과 수행을 살펴보면 예절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 수신예절과 대인관계 예절에 대한 가치의식과 수행이 높게 나타났다.

3.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과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대학생의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과 수행에

<표 4> 생활예절의 가치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생활예절의 가치의식					
독립변인	수신예절 b(β)	독립변인	대인관계예절 b(β)	독립변인	가정의례예절 b(β)
주교육자	-0.03(-0.01)**	모학력	0.07(0.03)**	부직업	-0.70(-0.25)**
모연령	0.13(0.04)**	모연령	0.12(0.04)**	전 공	-0.21(-0.10)*
모학력	0.07(0.13)**	주교육자	-0.02(-0.01)*	주교육자	-0.02(-0.01)*
전 공	0.15(0.07)*	—	—	—	—
가족형태	-0.12(-0.01)*	—	—	—	—
상 수	3.79	상수	3.47	상수	4.56
R*	0.07	R*	0.04	R*	0.04
F	6.86***	F	6.43***	F	4.36**

* P<0.05 ** P<0.01 *** P<0.001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생활예절의 가치의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하위영역으로는 <표 4>와 같이 수신예절은 주교육자가 학교보다는 부모님일 경우, 모의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전공은 예체능계열보다는 그의 계열일수록, 가족형태는 확대가족보다 핵가족이 수신예절에 대한 가치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대인관계예절은 모의 학력과 연령이 높을수록, 주교육자가 학교보다는 부모님일 경우 가치의식이 높았고, 가정의례예절은 부의 직업이 단순노무직보다는 그의 직업일 때, 전공계열에서는 타계열보다는 예체능계열 학생들의 가치의식 수

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예절의 가치의식에 상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공통적인 요인으로 주교육자와 모의 연령으로, 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에 영향력 높게 나타난 것은 예절은 생활 문화이기에 삶의 경험이 많은 부모님을 둔 경우 부모님의 예에 대한 관심과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이정우, 김연화, 1996) 결과와 일치함을 보인다.

2) 생활예절의 수행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하위영역으로는 <표 5>와 같이 수신예절의 수행은 주교육자가 학교보다는 부모님일 때, 본인의 나이는 많을수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모의

<표 5> 생활예절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생활예절의 수행					
독립변인	수신예절 b(β)	독립변인	대인관계예절 b(β)	독립변인	가정예절예절 b(β)
주교육자	-0.03(-0.01)***	성	0.25(0.05)***	성	-0.44(-0.09)***
나 이	0.08(0.03)**	나 이	0.09(0.03)**	나 이	0.19(0.06)***
성	0.12(0.05)*	성장지	-0.13(-0.07)*	예절교육경험	-0.15(-0.06)**
모연령	0.08(0.04)*	—	—	부직업	-0.53(-0.28)*
—	—	—	—	모연령	0.12(0.07)*
상 수	3.27	상수	3.01	상수	4.98
R*	0.07	R*	0.08	R*	0.12
F	6.72***	F	9.22***	F	7.37**

* P<0.05 ** P<0.01 *** P<0.001

〈표 6〉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과 수행간의 상관관계

구분영역	수신예절 수행	대인관계예절 수행	가정의례예절 수행
수신예절 가치의식	0.298***	0.192***	0.069
대인관계예절 가치의식	0.294***	0.213***	0.147***
가정의례예절 가치의식	0.207***	0.207***	0.280***

* P<0.05 ** P<0.01 *** P<0.001

연령은 많을수록 상대적 영향력은 높았으며, 대인관계예절의 수행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나이는 많을수록, 성장지가 농촌에 보다는 대도시 일 때 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의례예절의 수행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나이는 많을수록, 예절교육 경험이 있을수록, 부의 직업은 단순노무직보다는 그의 직업을 가질수록, 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생활예절에 대한 수행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예절의 수행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공통적인 요인은 성, 나이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예절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성에 따른 차이를 두지 말고 남·녀 공통으로 생애초기 단계에서부터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심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과 수행간의 관계

대학생의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과 수행간의 관계는 피어슨(Pearson)의 적률상관 계수를 산출했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은 생활예절 수행과 높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는 기성세대와 청소년의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과 수행간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힌 연구(이길표, 1997) 결과와 일치함을 보였으며, 생활예절의 가치의식이 높으면 수행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생활예절에 대한 수행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치의

식을 높일 수 있는 개념적 이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연구문제의 결과를 통해서 얻은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과 수행의 일반적인 경향에서 가치의식(3.92)과 수행(3.42)의 수준은 평균(3.00)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가치의식에 있어서 높은 수준을 보인 영역의 순서는 수신예절, 대인관계예절, 가정의례예절의 순이었다. 또한 수행에 있어서 높은 수준을 보인 영역의 순서는 대인관계예절, 수신예절, 가정의례예절의 순이었다.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과 수행에서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인 영역은 가정의례예절 영역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구조의 변화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가정의례예절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되며, 따라서 가정의례예절 영역은 수신·대인관계예절보다 학교교육에서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과 수행에 차이를 나타낸 변인들은 성, 전공, 종교, 이성친구 유무, 성장지, 부와 모의 연령, 부의 직업, 가족형태, 예절교육경험 유무였다.

생활예절의 가치의식에서 수신예절의 경우 모의 연령이 높을 때와 핵가족과 예절교육의 경험이 있을 때 수준이 높았으며, 대인관계예절의 경

우는 부와 모의 연령이 높을 때와 예절교육의 경험이 있을 때 수준이 높았고, 가정의례예절은 예체능 계열의 학생과 부의 직업이 사무직·전문직일 때 수준이 높았다.

생활예절 수행에서 수신예절의 경우, 여학생, 이성친구가 있을 때, 부와 모의 연령이 높을 때, 예절교육의 경험이 있을 때 수준이 높았으며, 대인관계예절의 경우는 여학생, 예절교육의 경험이 있을 때 수준이 높았고, 가정의례예절은 남학생, 종교가 불교나 무교일 때, 성장지가 대도시일 때, 모의 연령이 높을 때 수준이 높았다.

셋째, 생활예절의 가치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주 교육자가 부모님일 때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았다.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에서 여학생이 가장 상대적 영향력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본인들의 나이가 많을수록, 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상대적 영향력이 높았다.

넷째,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과 수행간의 관계를 보면 가치의식과 수행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즉 가치의식이 높을수록 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생활예절에 대한 수행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을 높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의 연구과제 및 연구방향에 대해 제언을 하면, 예절교육은 성의 구별 없이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동등하게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의 발달단계별로 적합한 예절교과내용 및 지도방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생활예절, 가치의식, 수행

참 고 문 헌

- 김득중(1994). 생활예절 이렇게 간다. 교문사.
 _____(1997). 실천예절 개론. 교문사.
 김윤환(1993). 기본 생활예절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일명, 김명자(1989). 기성세대와 대학생의 가족 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59-78.
 김진규(1996). 청소년의 예절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여성교양학회지, 3, 261-305.
 노은호(1996). 초등학교 생활예절 교육내용 및 지도 실태 분석. 한국여성교양학회지, 3, 235-259.
 남상민(1997). 예절학. 박영사.
 박동호(1994). 현대인의 예절, 창우사.
 박민규(1994). 국민학교 예절교육 내용 및 지도 실태 분석.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홍석(1991). 서양식 예절. 한국브리태니커회사.
 서정아(1994). 결혼 및 자녀에 대한 대학생들의 가치관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편(1989). 현대사회와 예. 탐구당.
 옥선화(1975).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의 전통성과 근대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3(4), 67-82.
 예절교육편찬위원회편(1992). 생활예절 교육. 학문사.
 이길표(1994). 가정규범에 관한 기성세대와 청소년간의 가치인식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3), 135-146.
 이길표(1997). 규범서를 중심으로한 기성세대와 청소년간의 생활예절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3), 115-137.
 이정우의 6인(1996). 생활예론.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이정우, 김경아(1997). 기혼여성의 생활예절 가치의식과 생활예절 수행(-생활규범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회지, 12, 39-55.
 이정우, 김연화(1996). 대학의 생활예절 교육 실제 및 수강효과에 관한 연구, 숙명 창학 90주년 기념 특번호, 숙명여자대학교 건강생활과학연구소, 3-24.
 이정우, 윤현희(1996). 여자대학생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과 가사수행능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33-45.
 이정우, 이미선(1985). 가정관리 실습과 실습후의 가정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1-13.

- 임희규(1994). 생활예절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1, 211-230.
- 장경선(1993). 가정과 교육을 통한 예절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덕희(1972). 국민학교 예절교육의 아동심리학적 고찰. 교육연구, 10호.
- 정지영, 주영애, 안현숙(1996). 대학생의 생활예절에 대한 의식조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3, 307-335.
- 정지영, 임혜경(1997). 대학생의 예절교육에 대한 요구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4, 1-20.
- 정현아(1994). 유아의 기본 생활교육에 대한 부모 최병호(1991). 기본예절과 인격형성. 충남교육청, 1991(3호), 28-33.
- 와 교사의 인식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여성교양학회지(1991). 생활예절. 양서원.
- Post, E. L.(1969). *Emily Post's Etiquette(12th ed)*. New York : Funk and Wagnells.
- Dewey J.(1966). *Democracy and Education*. New York : Macmillian Publishing Co.